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이퓨처(134060)

출판·매체복제

요약
기업현황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NICE평가정보(주)

작성자

강보연 전문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 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 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퓨처(134060)

국내 ELT 영어교재 전문기업, 독자적 콘텐츠 기반 글로벌 영향력 확장

기업정보(2022/01/07 기준)

대표자	이기현
설립일자	2000년 01월 21일
상장일자	2011년 04월 27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주요제품	교과서, 학습서적, 교육 콘텐츠

시세정보(2022/01/07 기준)

현재가(원)	8,08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385
발행주식수	4,769,250
52주 최고가(원)	13,300
52주 최저가(원)	7,020
외국인지분율	3.39%
주요주주	이기현

■ 전 연령 대상 영어교육 콘텐츠 개발, 유통 기업

이퓨처는 다양한 영역에 해당하는 영어 콘텐츠를 시장 트렌드에 맞춰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다. 유치·초등 영어교육 콘텐츠의 경우 자체 개발하고 있으며 성인용 영어 콘텐츠의 경우 해외 출판사의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 유통하고 있다. ELT(English Language Teaching; 시험대비서와 구분되어 영어 자체를 배우기 위한 영어교육 전문교재) 전문기업으로 교재 개발 및 유통뿐만 아니라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는 등 서비스 영역을 지속 확장해나가고 있다.

■ 고유 콘텐츠 저작 역량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 확장성 확보

2003년 Phonic 교수법을 기반으로 자체 콘텐츠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EFL Phonics라는 제품을 출시하며 본격적으로 ELT 시장에 진입하였다. 자체 연구소를 통해 개발한 고유 콘텐츠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 라인업을 구성하였으며 Webinar Youtube Contents, 모바일 앱, 온라인 교육 플랫폼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 접목을 통해 매출원을 다각화하고 있다. 원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2차, 3차 저작물 제작이 가능하고, 시장 수요에 대한 빠른 대응력을 보유하고 있는 등 사업의 안정성, 지속성, 확장성을 확보하고 있다.

■ 글로벌 판로 확장을 통한 외형적 성장 기대

국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시장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어 동사는 보유 콘텐츠를 해외 수요에 부합하게 개발하여 공급함과 동시에 해외전용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 해외교사교육 확대, 도서전 참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글로벌 판로를 확장하고 있다.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와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시아 국가에 유통망을 확장하고 있으며 Amazon, Shopee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유통망을 신설하는 등 해외 진출에 집중하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개별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98	14.5	3	3.0	3	3.4	2.0	1.7	21.7	70	3,749	54.1	1.0
2019	107	8.7	10	8.9	17	16.0	9.7	7.8	25.7	359	4,087	17.7	1.6
2020	107	0.5	10	8.9	5	5.0	2.9	2.4	19.1	113	4,155	81.4	2.2

기업경쟁력

영어교육 콘텐츠 자체 개발 역량

- 2003년 Phonics 교수법을 기반으로 자체 콘텐츠 개발 (EFL Phonics 제품 출시)
- 회사 내 체계적인 R&D 센터 구성 (연구팀, 콘텐츠개발팀, 창작연구개발실 운영)
- 전체 직원 중 48%에 달하는 연구인력 보유
- 콘텐츠 저작권을 기반으로 2차, 3차 가공 용이 (One Source, Multi Use)

글로벌 사업역량

- 비영어권 국가 기업으로서는 이례적인 영어권 국가 대상 제품 수출
- 북미, 중남미, 아시아 등 글로벌 국가 진출
- 공립학교, 공부방, 홈스쿨링 등 신규 시장 진출 (중남미 시장)
- 국가별 영업 인력 파견 및 수출 Agent 고용
-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 및 현지 교사들을 대상으로 제품 사용법/영어교습법 제공

핵심기술 및 핵심제품

핵심기술

- 유치·초등 단계에 최적화된 영어교육 콘텐츠
- 단어가 가진 소리, 발음을 배우는 Phonics 교수법에 기반한 제품 (Smart Phonics)
- Grammar, Reading, Speaking, Writing, Listening 등 종합 영어 교육 콘텐츠
- 온라인 학습지원 플랫폼 'eSmart Campus'

핵심제품

영어교육 교재

Smart Phonics 시리즈



ESG 현황

Environment

항목	현황
환경 정보 공개	■
환경 경영 조직 설치	■
환경 교육 수준	■
환경 성과 평가체계 구축	■
온실가스 배출	■
에너지, 용수 사용	■
신재생 에너지	■

■ : 양호 ■ : 미흡 □ : 확인불가

Social

항목	현황
인권보호 정책 보유	■
여성/기간제 근로자 근무	■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
공정거래/반부패 프로그램	■
소비자 안전 관련 인증	■
정보보호 안전 관련 인증	■
사회공헌 프로그램	■

■ : 양호 ■ : 미흡 □ : 확인불가

Governance

항목	현황
주주의결권 행사 지원제도	■
중장기 배당정책 보유	■
이사회 내 사외이사 보유	■
대표·이사회 독립성	■
감사위원회 운영	■
감사 업무 교육 실시	■
지배구조 정보 공개	■

■ : 양호 ■ : 미흡 □ : 확인불가

- > 당사는 인권보호 정책을 보유하고 있고 공정거래/반부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 주주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원제도를 보유하고 있고, 정관 내 중장기 배당정책을 명시하고 있음.
- >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이 42%로,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본 ESG현황은 나이스평가정보사가 분석대상 기업으로 입수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분석 시점 및 기업의 참여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기업현황

ELT 영어교재 전문기업, 이퓨처

이퓨처는 유치·초등 등 저학년 위주의 ELT 영어교재 개발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년 기술사업 노하우 및 다수의 고유 콘텐츠를 보유한 영어교육 콘텐츠 전문기업이다.

■ 개요

이퓨처(이하 동사)는 영어교육 콘텐츠 개발 및 유통 전문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콘텐츠 및 수입 콘텐츠에 대한 국내 유통, 자체 콘텐츠의 해외 수출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동사는 David English House Korea(1994년 설립된 언어학 중심의 영어교습소)를 전신으로 하여 2001년 1월 설립되었으며 2003년 Phonics 출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ELT 콘텐츠 개발 및 제작이 이루어졌다. 이후 국내외 다수의 기업과 콘텐츠 공급계약 체결을 통해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2011년 4월 2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 보유 콘텐츠 및 주요 서비스 현황

동사의 주요 사업부문은 유치·초등·중등 교육용 영어교육 콘텐츠의 판매를 위해 디지털 콘텐츠 개발, 글로벌 비즈니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파닉스(Phonics), Grammar, Reading, Speaking, Writing, Listening 등 영어교육의 전 부문에 대한 교재를 개발 및 공급하고 있다.

그림 1. 주요 사업 분야



*출처: IR 자료(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ELT란 실용영어를 가르치는데 필요한 서적, 교수법 등을 망라한 개념으로, 입시영어 등을 위한 시험대비서와 구분된다. 동사는 2003년 Phonic 교수법에 기초하여 자체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Phonics라는 제품을 출시하며 ELT 시장에 참여하였다.

동사의 2021년 3분기 제품별 매출기준 파닉스 교재가 전체 매출의 46.6%, 코스북이 19.7% 문법교재 12.4%, 읽기교재 7.2%로 파닉스 교재가 매출의 핵심 사업이다.

영어교육의 경우 유아 및 초등·중등학생을 주요 수요층을 두고 있으며 점차 성인층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동사는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영어교육을 책임지는 방대한 교육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파닉스, 코스북, 말하기, 읽기, 문법, 작문에서부터 내신 대비까지 총 11개 영역, 92개 시리즈, 1,144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교육산업은 정부의 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 중 하나이며 정부에서는 공교육 중심의 교육 체제 전환을 지속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EBS 중심의 수능 공부 및 출제, 수능 절대 평가제, 대입 수시전형 확대, 학원 수강료 상한제, 학원 심야 영업 제한, 선행학습 금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공교육 중심의 교육 시스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입시 및 공교육 제도의 변화로 사교육에서의 영어학습 주 연령층이 낮아짐에 따라 동사는 낮은 연령대 학습자 중심의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 및 다양한 읽을거리를 개발하여 다양한 수요에 부응함과 동시에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출산을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내 교육산업 또한 축소되고 있다. 동사는 국내 파닉스 시장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줄어드는 시장 환경에 발맞추어 해외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ETL 시장의 주력 상품군인 회화 코스북을 초등용으로 해외수요에 맞춰 개발하였으며 온라인 지원 사이트 등과 함께 해외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영업직원 해외파견, 해외교사교육 확대 및 도서전 참가 등을 통해 수출 국가 및 거래처 확대에 사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동사는 비영어권 국가 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영어권인 미국에 판권을 수출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스페인 등 주요 비영어권 국가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노하우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시아 시장 내 입지를 확장하고 있으며 중남미의 경우 기존 사립학교(교재) 외 공립학교(교재), 공부방, 홈스쿨링 등 다양한 시장으로 진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Amazon, Shopee 등을 통해 글로벌 유통 채널을 구축하며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림 2. 주요 수출국 현황



■ 연구개발 이력

동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2001년 12월에 설립하여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개발 및 제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작권 문제없이 교육 시장에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다. 전체 임직원의 49% 이상이 콘텐츠 기획 및 개발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개발비의 경우 최근 2년 평균 전체 매출의 20% 수준이고 2021년 3분기 기준 약 17.21%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체 개발 콘텐츠를 기반으로 시장 내 영향력 확장에 사업역량을 주력하고 있다.

표 1. 최근 연구개발 실적

연구과제명	기대효과	상품명	출시일
Phonics 스킬 향상	스토리로 파닉스 규칙을 연습하는 리더스	Smart Phonics Readers	2021.01
중등 읽기교재	리딩 스킬 학습 및 독해력 향상을 위한 교재	Reading Town(개정판)	2021.01
중등 읽기교재	리딩 스킬 심화학습 및 독해력 향상을 위한 교재	Reading World(개정판)	2021.01
초등 회화교재	7레벨의 코스북으로 학생들이 영어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초등 필수 교재	Let's Smile	2021.05

출처: 3분기 보고서(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기술사업 분석

파닉스는 단어가 가진 소리 및 발음법을 배우는 교육방식으로 영어권에서는 난독증을 보이는 아이에게 쉽게 읽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동사는 2003년 파닉스 교수법에 의거한 ‘Smart Phonics’ 교재를 출시하였고 현재 파닉스 교재에서 압도적인 국내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동사의 파닉스 교재는 총 5권으로 구성되며 단계별로 학습 난이도를 구분지어 처음 영어를 접하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영어학습을 제공하고 있으며 파닉스 규칙에 맞지는 않아 통째로 기억해 두어야 할 사이트 워드(sight words)를 이야기와 노래에 수록하여 자연스러운 학습 및 발음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교재는 Student Book, Workbook, Flashcards, Board Games로 구성되며 교재 내 오디오 및 다양한 파닉스 게임을 지원하는 CD를 함께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책의 모든 학습에 대해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학습에 대한 재미 및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무료 온라인학습을 개발 및 서비스하고 있다.

그림 3. 주요 '웹/모바일 App' 교육 콘텐츠



*출처: 홈페이지(digital.e-future.co.kr)(2021)

표. 재무 분석

주 매출원인 Smart Phonics의 성장 지속

동사는 국내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시장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이지만 Phonic 교수법에 의거 자체 개발한 초등학생용 교재인 Smart Phonics 시리즈의 호조로 2020년 결산 기준 전년과 유사한 107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였다.

■ Phonic 교수법에 의거한 자체 콘텐츠 EFL Phonics 보유

동사는 2001년 1월 설립된 영어교육 콘텐츠 개발 및 유통 전문기업이며, 2003년 Phonic 교수법에 의거한 자체 콘텐츠 개발에 성공하여 EFL Phonics라는 제품을 출시하면서 ELT 시장에 진입하였다.

동사의 주요 제품군은 초등학생용 파닉스 교재인 Smart Phonics, 초등학생용 영어 교재 코스북 Smart English, 초등학생용 영어문법 교재 My First Grammar 등이 있으며, 학습자 중심의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 및 다양한 읽을 거리를 개발하여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있다.

그림 4. 동사 연간 및 분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이

증가율/이익률 추이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분기보고서(2021)

그림 5. 동사 연간 및 분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부채총계/자본총계/자산총계 추이

유동비율/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 추이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분기보고서(2021)

■ 보유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 기대

동사는 COVID-19로 인한 홈스쿨링 및 소규모 공부방 등 비대면 학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교육 노하우를 Webinar 및 교육용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체 보유한 ELT 콘텐츠를 기반으로 개발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AI기술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모바일 기반 교육 플랫폼인 'SMARTree' 를 재개발하는 등 보유 콘텐츠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어 매출원의 확대를 통한 성장이 기대된다.

동사는 2020년 결산 기준 국내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시장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이지만 Phonic 교수법에 의거 자체 개발한 초등학생용 교재인 Smart Phonics 시리즈와 영어 교재 코스북인 Smart English의 호조로 전년과 유사한 107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였다.

동사의 매출원가율은 2019년 35.1%, 2020년 33.1%로 개선되었으나, 지급수수료 증가 등으로 판매관리비 부담이 확대되면서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전년 수준인 8.9%를 기록하였다. 외화 환산손실과 법인세비용 증가로 인해 매출액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한 5.0%를 나타내었다.

■ 2021년 3분기 매출 성장, 수익성 크게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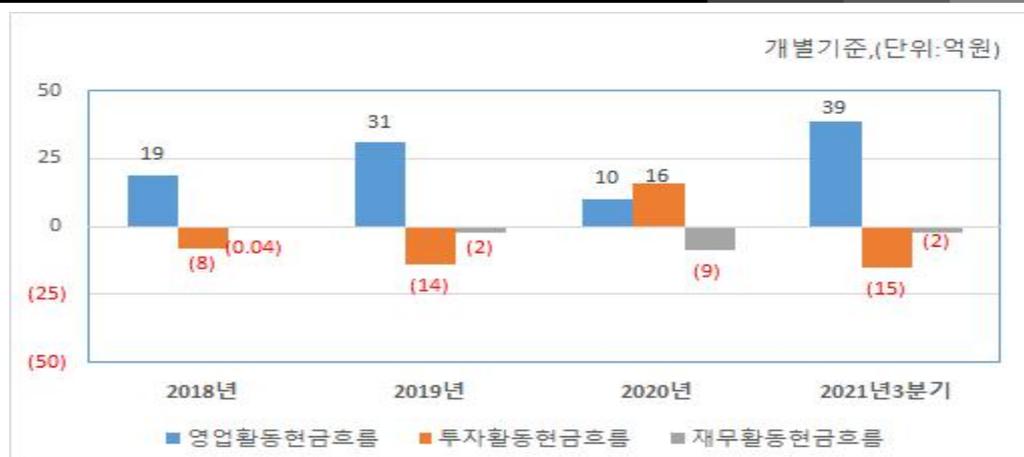
동사는 2021년 3분기 기준 온라인 교재 판매처의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한 85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였으며, 매출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의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개선된 매출액영업이익률 15.0%, 매출액순이익률 19.4%를 기록하였다.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19.4%, 자기자본비율 83.7%, 유동비율 1,248.4%를 나타내었고 우량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 영업활동을 통한 꾸준한 현금 유입

동사는 이익 시현을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통해 꾸준히 현금이 유입되고 있으며, 유입된 자금으로 투자 및 재무관련 소요자금을 충당하고 잉여 현금은 내부 유보하여 기말 현금이 증가하는 등 원활한 자금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림 6.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분기보고서(2021)

Ⅲ.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온/오프라인 교육 사업 역량 확보, 적극적인 글로벌 판로 확장

비대면 교육 산업의 성장에 발맞추어 보유한 고유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령 인구 감소, 중국 내 사교육 시장 위축 등에 대비하여 아시아, 중남미 등 전 세계적으로 판로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 주요 사업 이슈

2020년 글로벌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COVID-19로, 이로 인해 금융/유통/서비스 등 대다수 대면을 통해 이루어지던 산업들은 성장이 둔화되고 더 나아가 움츠러들었다. 반면 IT 기술에 기반하여 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던 비대면 서비스 산업은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되었으며 대면 서비스 시장의 많은 부분을 흡수하여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유통/교육 부분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백화점, 대형 쇼핑몰 대신 온라인 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생활품을 비롯한 소비재 구매가 증가하였으며 학교, 학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던 수업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었다. 동사는 20년간 교육산업에 종사하며 쌓은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기반으로 Webinar 및 교육용 동영상 제작을 통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발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ELT 콘텐츠를 접목한 AI 디지털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있는 등 One Source, Multi Use를 통해 매출원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7. One Source, Multi Use 전략



*출처: IR 자료(2021)

■ 학령인구 감소, 중국시장 축소에 따른 적극적인 신시장 창출 전략

통계청의 2020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2012년 가입 여성 1명당 1.30명에 이르던 출산율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 집값 상승, COVID-19로 인한 경제 성장률 저하로 지속 하락하여 2020년 0.84명에 이르렀으며 2021년 3분기 기준 0.82명으로 추산되었다. 이에 동사의 주요 타깃층인 유치, 초등 연령대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며 동사는 이에 대비하여 ELT 시장의 주력 상품 군인 회화 코스북을 해외 수요에 맞춤형으로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신시장 개척에 사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14억 명에 이르는 인구수, 사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로 우리나라 교육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진출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의무교육(초·중학교) 과정에서 학과류 과목(중국어, 수학, 영어 등 학교에서 교육하는 과목)의 영리 목적 사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금지하였으며 사교육 기관이 기업공개(IPO)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에 사교육 종사자들이 급감하였으며 기업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등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동사 또한 중국 온라인 교육업체와 협력하여 중국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중국 외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와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시아 국가에 지속적으로 유통망을 확장하며 중국발 위협에 대한 완충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Amazon, Shopee 등을 통한 글로벌 유통 채널을 구축하며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동사의 글로벌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8. 해외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현황



*출처: 홈페이지(e-pep-schools.com)(2021), IR 자료(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ESG 활동 현황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ESG 평가는 기업엔 지속 가능 경영의 동기를 유발하고 투자자에게는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국내 ESG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QESG 가 있다.

환경경영 기준은 환경문제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부각됨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사회책임경영 기준은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국제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투자 의사 결정 고려요소가 됨에 따라 제정되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규준은 우리 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림 9. ESG 모범규준 예시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홈페이지(2021)

공개 자료 및 질문지를 통해 ESG 항목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확인한 결과, 당사는 환경정보 공개, 환경 경영 조직 설치, 환경 성과평가체계 구축 등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동사의 2021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총 45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여성 근로자 25명(55%), 기간제 근로자 5명(11%)로 확인된다. 또한, 당사는 자체적인 인권 보호 정책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반부패 프로그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해 사회관점의 신뢰성, 투명성, 합리성을 바탕으로 정도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위의 사항을 고려할 시, 사회책임경영에 관한 부문에 대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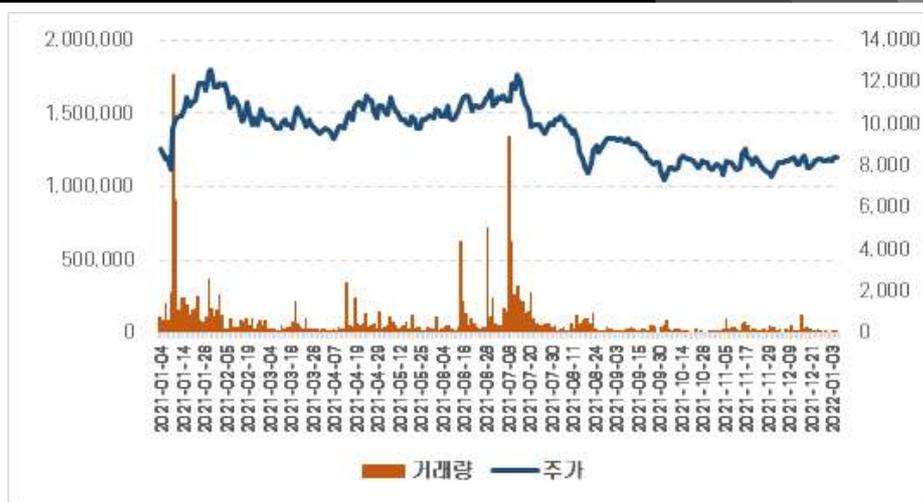
동사는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자체적으로 개인정보취급정책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통해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 ‘개인정보 보호’, ‘어린이 정보 보호’, ‘쿠키(Cookie) 운영’, ‘개인정보 보호 관리 책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립하고 있는 등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관리하고 있어 정보보호경영에 관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지배구조 부문과 관련하여 당사는 총 7명의 이사 중 3명의 사외이사를 보유하고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이 42%로 나타나며,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선임 여부를 정하고 있어 이사 선정의 공정성, 이사 선출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업무 감사를 수행하며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고 적합한 절차를 거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소집이 가능한 권한을 갖는 등 이사회 및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6개월 이내 발간 보고서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출처: Kisvalue(2022.01)